

근현대 유학 연구 활성화 기대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한국학진흥사업 최종 단계 진출 성공

이종근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가 한국학진흥사업단 추진의 한국학진흥사업 3 단계에 진입했다.

한국학진흥사업은 모두 3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며, 각 단계별로 엄정한 심사와 보고서 평가를 통해서 추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2년 한국학진흥사업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분석 및 자료 수집 연구(연구책임자 홍성덕 교수)'에 선정된 이후 1·2단계(6년)를 거쳐 최종적으로 3단계(4년)에 진입에 성공했다.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앞으로 4년 동안 약 9억 여 원을 지원받아 19~20세기 호남·호서 지역 근현대유학자의 사회관계망 구축을 목표로 근현대 유학관련 자료를 조사·수집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일제 강점기 이후 유학 전통의 계승과 변용에 대한 탐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유학자들의 사상과 삶을 현재적 관점에서 재평가



△전주대 전경

한다.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DB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대국민서비스를 할 계획에 있다.

이같은 연구 사업은 19세기 이후 호남·호서 지역 유학자의 종합적인 인명데이터 구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학자 상호간의 관계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근현대 유학 연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터이다.

홍성덕 교수는 “2012년부터 쉼 없이 달려온 이 연구 사업이 마지막 단계를 무사히 통과하여, 처음 계획대로 2022년까지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 연구를 통해 그 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유학자들의 사상과 삶을 현재적 관점에서 재평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싶다”고 했다.

전북도민일보

2018년 6월 22일 금요일 018면 사람들 9.7 x 6.9cm

전주대 한국고전학硏 한국학진흥사업 최종 단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硏(소장 변주승)가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한국학진흥사업의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년 동안 약 9억여원을 지원 받게 되며, 19~20세기 호남·호서지역 근현대유학자의 사회관계망 구축을 목표로 근현대 유학관련 자료를 조사·수집하게 된다.

한편,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주관하는 '한국학기초자료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서울대, 한국국학진흥원, 인하대, 충남대, 울산대 등이 있다.

김혜지 기자

전주대, 한국학진흥사업 3단계 진입

19~20세기 호남·호서지역 근현대유학자 사회관계망 구축 목표
유학자 사상·삶, 현재적 관점에서 재평가... 대국민서비스 계획

전주대학교는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가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한국학진흥사업 최종 3단계에 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학진흥사업은 총 3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며, 각 단계별로 엄정한 심사와 보고서 평가를 통해서 추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지난 2012년 한국학진흥사업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분석 및 자료 수집 연구(연구책임자 홍성덕 교수)'에 선정된 이후 1·2단계(6년)를 거쳐 최종적으로 3단계(4년)에 진입에 성공했다.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앞으로 4년 동안 약 9억여원을 지원받아 19~20세기 호남·호서지역 근현대유학자의 사회관계망 구축을 목표로 근현대 유학관련 자료를 조사·수집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일제 강점기 이후 유학 전통의 계승과 변용에 대한

탐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유학자들의 사상과 삶을 현재적 관점에서 재평가 한다.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DB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대국민서비스를 할 계획에 있다.

특히 본 연구 사업은 19세기 이후 호남·호서 지역 유학자의 종합적인 인명데이터 구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학자 상호간의 관계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근현대 유학 연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고전학연구소 홍성덕 교수는 "2012년부터 쉼 없이 달려 온 이 연구 사업이 마지막 단계를 무사히 통과하여, 처음 계획대로 2022년까지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연구를 통해 그 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유학자들의 사상과 삶을 현재적 관점에서 재평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병권 기자

전민일보

2018년 6월 22일 금요일 014면 사람 10.4 x 11.0cm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한국학진흥사업 최종 단계 진출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가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한국학진흥사업 3단계에 진입했다.

한국학진흥사업은 총 3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며, 각 단계별로 엄정한 심사와 보고서 평가를 통해서 추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2년 한국학진흥사업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분석 및 자료 수집 연구(연구책임자 홍성덕 교수)'에 선정된 이후 1·2단계(6년)를 거쳐 최종적으로 3단계(4년)에 진입에 성공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앞으로 4년 동안 약 9억여 원을 지원받아 19~20세기 호남·호서지역 근현대유학자의 사회관계망 구축을 목표로 근현대 유학관련 자료를 조사·수집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일제 강점기 이후 유학 전통의 계승과 변용에 대한 탐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유학자들의 사상과 삶을 현재적 관점에서 재평가 한다.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DB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대국민서비스를 할 계획에 있다.

한국고전학연구소 홍성덕 교수는 "2012년부터 험 없이 달려 온 이 연구사업이 마지막 단계를 무사히 통과해 처음 계획대로 2022년까지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 연구를 통해 그 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유학자들의 사상과 삶을 현재적 관점에서 재평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복진기자

전주매일

2018년 6월 22일 금요일 005면 경제·사회 11.8 x 11.6cm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한국학진흥사업 최종 단계 진출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가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한국학진흥사업 3단계에 진입했다. 한국학진흥사업은 총 3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며, 각 단계별로 엄정한 심사와 보고서 평가를 통해서 추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2년 한국학진흥사업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분석 및 자료 수집 연구(연구책임자 홍성덕 교수)'에 선정된 이후 1·2단계(6년)를 거쳐 최종적으로 3단계(4년)에 진입에 성공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앞으로 4년 동안 약 9억 여 원을 지원받아 19~20세기 호남·호서지역 근현대유학자의 사회관계망 구축을 목표로 근현대 유학관련 자료를 조사·수집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일제 강점기 이

후 유학 전통의 계승과 변용에 대한 탐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유학자들의 사상과 삶을 현재적 관점에서 재평가 한다.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DB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대국민서비스를 할 계획에 있다.

특히 본 연구 사업은 19세기 이후 호남·호서 지역 유학자의 종합적인 인명데이터 구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학자 상호간의 관계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근현대 유학 연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고전학연구소 홍성덕 교수는 "2012년부터 쉽 없이 달려 온 이 연구 사업이 마지막 단계를 무사히 통과하여, 처음 계획대로 2022년까지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전라매일

2018년 6월 22일 금요일 005면 교육&문화&체육 12.1 x 14.9cm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한국학진흥사업 최종 단계 진출 성공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가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한국학진흥사업 3단계에 진입했다.

한국학진흥사업은 총 3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며, 각 단계별로 엄정한 심사와 보고서 평가를 통해서 추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21일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국학진흥사업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분석 및 자료 수집 연구(연구책임자 홍성덕 교수)에 선정된 이후 1·2단계(6년)를 거쳐 최종적으로 3단계(4년)에 진입에 성공했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앞으로 4년 동안 9억 여 원을 지원받아 19~20세기 호남·호서지역 근현대유학자의 사회관계망 구축을 목표로 근현대 유학관련 자료를 조사·수집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일제 강점기 이후 유학 전통의 계승과 변용에 대한 탐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유학자들의 사상과 삶을 현재적 관

점에서 재평가 한다.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DB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대국민서비스를 할 계획에 있다.

특히 이번 연구 사업은 19세기 이후 호남·호서 지역 유학자의 종합적인 인명데이터 구축이 가능할 뿐 아니라, 유학자 상호간의 관계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근현대 유학 연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고전학연구소 홍성덕 교수는 “2012년부터 쉼 없이 달려 온 이 연구 사업이 마지막 단계를 무사히 통과, 처음 계획대로 2022년까지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연구를 통해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유학자들의 사상과 삶을 현재적 관점에서 재평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주관하는 ‘한국학기초자료사업’을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서울대학교, 한국국학진흥원, 인하대학교, 충남대학교, 울산대학교 등이 있다. /정석현 기자